

# 아름다운 삶, 보람있는 삶 로타리 봉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 본받을 로타리 정신 “로타리는 내 삶의 정신적 지주였다”

56세에 로타리안이 되신 3650지구의 존경받는 지도자이셨던 송인상RI전이사님(한양RC)의 말씀을 회고해 보면, "정부의 공직에서 오랫동안 봉사를 하셨기에, 늦게나마 로타리가 무엇인지를 터득하게 되었고, 로타리를 통해 부족한 점을 보충하고자 결심하여 성실한 로타리안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로타리 정신이 당신 생각에 딱 맞다고 생각하고, 봉사의 깊은 뜻을 이해하여 봉사 사업에 대한 애정으로 더욱 봉사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라고 생전에 회고하셨다. 또한, 오재경RI전이사님과 함께 한국어를 세계 공용어로 사용하게 하신 송인상 RI전이사님의 큰 공로는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로타리 지도자로 존경받으셨던 분이시다. 또한 선배 로타리 지도자는, 궁극적으로 사람과 사람을 맺어주는 '仁'과, 이웃의 불행을 예사로 보지 않는 '측은지심'의 덕목으로 연결되어 관용하는 마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마음으로 돕고 돕는 로타리의 봉사철학을 로타리 선배님을 통해 후배들에게 말씀을 들려 주시기도 했다.



차기총재 박수부  
(2019-20 총재, 서울중앙로타리클럽)



### 멈추지 않는 봉사

1979년 필리핀에서 시작된 소아마비 퇴치 노력은 1988년 125개국이었던 소아마비 발병국 수를 2018년에는 거의 다 퇴치해가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1905년 창립된 로타리 국제봉사단체는 세계 200 여개국에 120만여명의 회원이 로타리안으로 소속되어 있다. 539개 지구(지구당 평균 회원수 2,200 여명), 36,000 여개의 로타리클럽(클럽당 평균 회원 3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구 소속 클럽수는 평균 67개이다. 우리 지구는 80여 개 지구 회원수는 2,100 여명이다.

3650지구의 각 클럽은 지금도 도처에서 국내외 봉사를 기획하며 봉사를 펼치고 있다. 200 여건 봉사에 20억원의 봉사기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기금 사용

지구에서 로타리재단의 연차기금으로 기부한 총액의 50%는 3년 후 해당 지구로 지구지정기금(DDF/District Designated Fund)으로 되돌려주어 지구에서 그 중 50%는 지구보조금으로, 나머지 50%는 글로벌 보조금으로 봉사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보조금의 경우 지구 출연금의 100% 클럽 출연금의 50%를 상응기금으로(Matching Fund)으로 추가적으로 지원한다. 우리 3650지구는 매년 3년 전 기부실적에 따라 배정된 \$100,000~200,000의 DDF를 사용하며, 지구보조금 봉사사업과 글로벌 보조금 봉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3650지구는 15개 내외의 지구보조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봉사사업 사례로는,

[국외봉사]

- 베트남 구순구개열 아동수술지원사업
- 캄보디아,미안마 초등학교 시설 개보수지원사업
- 네팔,부탄의 의료봉사사업 및 병원 의료시설지원사업
- 미안마,남수단,몽골,필리핀 등 우물파기지원사업
- 일본 지진복구지원사업 등

[국내봉사]

- 전립선 무료진료사업
- 다문화가정 돕기
- 학대받는 아동 돕기
- 저소득층 가정 돕기,연탄봉사
- 김장봉사 등

특히, 글로벌그랜트 봉사사업은, 국제 파트너가 필요하며, 외국 지구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게 되며, 6대 초점분야(평화 및 분쟁 해결 예방,질병 예방 및 치료,수자원 및 위생,모자보건,기본 교육과 문해력,경제 및 지역사회 개발)에 국한하고 있다.

각 클럽의 봉사 역시,노인 배식봉사, 영아원,고아원 방문 등 서울시와 각 지역단위구청 사회복지과를 통해,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이면 적은 회원수에걸맞는 봉사 현장을 찾아 끊임없이 봉사하는 로타리 정신은 가히 감동적이기도 하다.

로타리 하면 '봉사'다.

봉사의 활성화를 위해 회원 늘림과 재단 기부를 강조함이 필수임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열심인 봉사활동

존 점 RI전회장(2016-17)은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인류에 더 나은 삶을 위해 봉사하는 로타리인이 자랑스럽다” 돕고자 하는 마음,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나서려는 의지,이것이 로타리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로타리는 기꺼이 다가갑니다. 결코 그냥 두고 지나치지 않습니다.”

로타리안의 이러한 행동과 실천은, “난 당신을 돕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우리는 인류에 봉사하는 로타리와 함께 합니다”라고 오늘도 되뇌어 봅니다.

한국 로타리의 종주지구인 3650지구의로타리안 모두가 끊임없는 봉사를 통한 기쁨과 보람을 공감할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

